

작년 매미가 활하고 간 수해지역의 공공시설 물 복구율이 86.7% 정도라고 한다. 금년 여름 우리나라에는 30일 정도의 장마가 이어지고 예상 강수량은 연평균 장마철 강수량 151~376mm보다 다소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태평양 고기압세력이 급속히 동아시아 지역으로 이동함에 따라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각각 두세차례의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불자 세상보기

황진수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

水災를 피해가는 길

나 시간이 소요되는가를 알아보니 32주였다. 주정부와 LA시에서 32주를 기준으로 정해 놓고 빨리 재해 지역을 복구하는 회사에 하루 1만달러씩 보상을 주겠다고 했더니 16주만에 완공되었다는 일화가 있다. 그들은 이를 가치공학(Value engineering)이라고 부른다. 장마철의 재해관리를 위해서 우리는 얼마전에 발족된 소방방재청을 비롯하여 시·도·관·국·도의 긴밀한 총체적 관리시스템이 가동되어야 할 것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재앙을 가져온다. 따라서 평소 관심을 가지고 예방, 하천, 댐, 도로의 예상되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전에 주민스스로 예비 모임, 예산청구, 도상훈련 등을 실시해야 한다. 재난이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을 때 생기는 일도 있지만 예상가능한 일도 있음을 대치해야 할 것이다.

을 피할 수 있었고 그 소년의 이름은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넷째는 원스톱 서비스(One-stop service)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하천, 도로, 주민대피, 복구 등에 있어 관련 부처 공무원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정부가 「재해관리 제도개선 추진계획」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를 도입하는 등 28개 제도 개선과제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시행상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관련기관이나 해당공무원이 혼합관조(混雜觀照)모형에 의해 망원렌즈에 의한 관찰과 정밀렌즈에 의한 관찰방법을 동원하여 장기적 안목에 따른 과학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재해문제를 다루는 업무에 대하여 무리한 비유인지 모르지만 왼쪽다리를 잘라야 하는 환자에게 오른쪽 다리를 잘라놓고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고 오리발 내미는 철면피같은 공무원이 자는 없었으면 좋겠다. 행정이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해야 하고, 재해방재도 물이 막히지 않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불자의 눈 논설위원 기명사설

꼭 필요한 일이지만 결행을 하기 쉽지 않은 일이 있다. 문제가 많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개선하기 힘든 일이 있다. 결행을 하였다가는 뒤따르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을 것이 예상되고, 모든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만한 모범답안이 쉽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 그러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승려 교육 개혁'의 문제일 것이다. 요즈음 현안이 되고 있는 '선교육 후속도' 제도만 해도 대다수가 그 필요성은 인정 하면서도 강원과 승가대학 등등의 각 집단들 간에 이해가 상충되고, 무엇이 더 시급한가에 대한 각층의 목소리가 불협화음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현실을 보면 이번엔 출범된 '승가교육제도개선추진위원회'(위원장 종범스님)가진 집은 너무도 무겁고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해야만 하고, 문제가 많으면 개선해야 한다. 쉽지 않다는 점 때문에 미루고 있어서는 불교의 미래가 없다는 인식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참다운 출발점이다. 그리고 여기에 꼭 덧붙여야 할 조건이 있다. 각계각층의

승가교육개선 제대로...

주장을 적당히 얼버무리는 식의 개혁은 안하느니만 못하다는 것이다. 어려운 문제라고 쉽게 피해갈 길만 생각하다 보면 결국 더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는다. 적절히 몇몇 집단의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개혁안이 나와서는 안 될 것이다.

우선은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의 장이 확대되어 많은 대중들, 가능한 모든 불자들에게까지 논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과정이야말로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꼭 필요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러한 공유된 문제의식이 깔려 있어야 어떤 안이 확정되더라도 그 실행에 힘을 얻을 수 있다. 한 두 집단의 반대에 부딪혀 이곳저곳을 뜯어고쳐 누르기 제도를 만들지 말고 의연하게 새로운 개혁안을 지속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다.

여러 계층과 집단의 자기의 목소리를 내되, 자신의 주장에 책임을 지고 모든 대중들 앞에 검증을 받아 그 각자가 올바른 결정을 위한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긴 호흡으로 많은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승속을 넘어서 지혜를 모아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급하게 미봉책을 내놓기보다는 불교의 백년대계를 이룬다는 의연한 각오로 임하는 '승가추'가 되기를 기대한다.

■ 성대용(연국대 교수)

특별기고

인생이 명상이다

요즘 우리사회에 명상처럼 자주 쓰이는 말은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사람들이 명상에 많은 관심을 갖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시대의 새로운 흐름이고 요구사항이다. 삶을 온전하게 하려면 무엇이든지 쫓고 나가면 안된다. 명상 공부 또한 삶과 명공부를 따로 나누면 안된다. 일상사 모두가 명상이어야 한다. 즉 삶이 명상이고 명상이 곧 삶이어야 한다. 어떠한 이유라도 삶을 조각조각 나누거나 훼손시켜서는 안되기에 삶과 명상도 결코 나뉘어질 수 없다.

정성을 기울여 총칭하는 것. 무슨 일이든지 매사에 열심인 것도 일종의 명상상태이다.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어야만 자신의 능력이 드러난다. 인류의 모든 문명발달의 기저에는 이와 같은 정신적인 합일의 명상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현대인들은 그것을 노동명상, 독서명상, 놀이명상 등 여러 가지 '생활명상'의 친근한 이름으로 부른다.

비추어 본다. 그 짧은 순간, 글 한 줄과 자신은 합일되는 것이다. 그 한 줄의 글은 바로 명상으로 이끄는 연결고리다. 글 한 줄뿐이 아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 속에서 자신을 떠올려 합일시켜 본다면 그 또한 명상고리이고 명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명상은 움직이는 것만도 아니지만 반드시 고요한 것만도 아니다. 어디까지나 순수하게 합일된 정신작용이다. 반성하고 다짐하고 기뻐하고 슬퍼하는 그 모든 것이 명상이고 명상에서 얻어진 결과이다. 그래서 합일된 정신작용만 늘 살아있으면 명상언어가 따로 정해진 것이



송암 스님

인성 도파안사 주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진지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대상을 자세히 들여다보지만 하면 모두가 중요한 명상의 연결고리, 곧 명상언어가 된다는 것이다. 실행 좋은 말이 아닌 자신에 게 쏟아지는 비난이나 욕이라고 하더라도 대립 없이 순수하게만 받아들이면 곧바로 자신을 성숙시키는 명상언어가 된다. 이것은 또 다른 각도에서 자신을 비추는 좋은 거울이 되기에, 그래서 자신의 정신이 접하는

대상과 둘 아닌 상태로 安心 이뤄야 시간·장소 따로 없이 매사 열심이면 '생활 명상'

오직 자신의 의지와 주체적인 노력에 의해서 대상과 둘 아닌 상태에 머물러야만 한다. 이런 경우를 절대적인 안심(安心)이나 평화, 곧 삼매(三昧)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명상언어는 거울이다. 명상언어를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다. 대개의 사람들은 부족하면 부끄러워하고 잘못하면 뉘우친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진실한 마음이다. 감명 깊은 글 한 줄을 읽게 되면 자신의 내면을 떠올리고 자신의 행을

아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이 명상이다. 사람은 자신의 정신과 대상의 합일을 통해 진실한 자기를 깨닫고 진실한 세계를 만난다. 이것이 명상의 힘이다. 여기에는 그 어떤 외형적인 차이도 영향을 끼칠 수 없다. 다만 얼마만큼 깊은 명상에 이르렀느냐 하는 성숙도만 그 사람의 성실과 순수성에 따라 차이가 날 뿐이다. 그래서 정신작용이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명상은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명상의 연결고리는 무엇으로 딱

'연대' 민명 심민섭



아름다운 전원 도량 일산 길상사

1백만배 1,000일 기도

"기도를 마치면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천원기도 인연도량인 길상사에 부처님 진신사리 모셨습니다. 이 뜻 깊은 불사회향을 함께 하고자 매일 1080배씩 1,000일 동안 1백만배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불자님께서 1백만배 기도 동참하시어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시고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입재 : 2004년 3월 15일 ◆회향 : 2006년 9월 15일 ◆장소 및 시간 : 길상사 대웅전, 매일 새벽 및 사시 예불

백중 49개 지장 천도기도 안내

8월 30일(음 7월 15일) 백중은 불교계에서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1,000일기도에 동참하시는 조상영가님들과 만년영구위례 영가님들을 위해 오는 7월 13일 백중 49일기도를 입재합니다.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꼭 동참하시어 다생겁테의 업장을 소멸하고 무진복락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중요한 결정이나 사업을 하신 분, 입사자녀를 앞둔 분들은 조상님들께 가장 좋은 효도가 될 수 있는 백중 49일기도에 많은 동참바랍니다.

- ◆백중 49일 기도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0시 30분
-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 ◆백중회향 기도 : 8월 30일(음 7월 15일) 오전 10시 30분
-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 3재 : 8월 2일(음 6월 17일)
-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 교통안내 : ●구파발 - 원당역 - 구교사거리 - 길상사 ●자유로 - 일산 오수교 - 길상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식사동 산 70-2 전화 031)966-9852
대한불교조계종 길상사 주지 보산 합장

일산 전원 포교도량
'상황버섯 재배, 주말농장 운영'

지장대불기도 도량 양주 대원정사

백중 설판공양 영가천도기도

백중 8월 30일(음 7월 15일) 우란분절로 '효' 사상을 일깨우는 뜻 깊은 명절입니다. 나로 인한 선망조상이나 부모님을 위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과 사업 원만 발전, 가족들의 안녕 및 입시 자녀를 위한 백중 49일 기도 입재를 7월 13일(음 5월 26일)에 봉행하오니, 사부대중께서는 인연 따라 두루 동참하시어 나로 인해 비롯된 모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며, 자녀들의 입시기도를 비롯한 학업성취 등 저마다 소원하신 바를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 동 참 비 : 영가 1위 30만원(백중 49일 기도기간 중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영가식식봉행)

- ▷백중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오전 11시
- 2재 : 7월 26일(음 6월 10일)
- 4재 : 8월 9일(음 6월 24일)
-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 초재 : 7월 19일(음 6월 3일)
- 3재 : 8월 2일(음 6월 17일)
-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백중(108참회기도)회향 : 8월 30일(음 7월 15일) 오전 11시

■ 토요일 철야정진 기도

- 토요일 밤 11시부터 일요일 새벽 4시까지

■ 판소리 / 장구 회원 모집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 참가비 1개월 : 1만원 (학생 · 일반인, 가족회원 환영)

오시는 길

1. 셔틀버스 - 오전 10시 10분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문산 방향 환승주차장) 출발 - 오전 10시 30분 장흥농협 앞 출발

2. 자가용 : 서울 구파발 → 장흥 → 돌고개 앵무봉 관광지 → 대원정사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석현리 산 126번지

지장대불조성 만들불사 접수중

대한불교조계종 대원정사 전화 031)855-5501, 3 / 팩스 031)855-5502